

---

# 수출 현황 및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옥동\*

## A study of current export situation and SMEs' vitalization plan suitable for Digital age

Ok-Dong Lee \*

**요 약** 수출은 국가 경제 성장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어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출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에 미치는 기여도나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출 장려 정책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디지털, 중소기업, 수출경로, 기여도, 활성화방안

**Abstract** In digital age export expansion is the key fact of promoting Korea's economic growth. The policy that encourages exportation is being more emphasized to develop of the nation's economy. From the 90's, regionalism has been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with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led by WTO and FTA. The world is now becoming one economic bloc.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enterprises contribute to the exportation to establish and manage the policy that encourage and support the exportation.

This study estimates SME's level of contribution on gross exports and understands the problem, while looking for better statistical alternatives and finding SME's export energizing policies. It is estimated that domestic SMEs contribute about 40-50% of gross exports. SME bureau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hould select optimal size of population of each industry, design and extract sample to conduct the export related survey extensively. SMEs should analyze the product and skills of the industry that is dominated by major companies to contribute to the exportation more efficiently. This effort will increase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gross exports in general.

**Key Words** : digital, SME(Small-Medium sized Enterprise), exporting route, level of contribution, vitalization plan.

---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빈곤한 국가에서 이제는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고 1인당 국

민소득은 세계 180개국 중에서 25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머지않아 프랑스와 영국 수준에 도달하고 2020년 경에는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한국은 경제력만 고려하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2년 12월 1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1월 17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60, 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은 신발, 합판, 가발, 의류 등 비숙련 노동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 주었다. 그러는 동안 농촌 지역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산업화에 어울리는 생산 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70년대 건설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보다 자본집약적 분야로 발전하면서 수출 품목이 보다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경제가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염려할 정도로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 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외국제품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이후 WTO가 주도하는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FTA에 의해 확산되는 지역주의로 인해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무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갈수록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역의존도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10년도 기준으로 87.4%를 기록하며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위인 독일의 60% 수준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22%와 일본 25.1%에 비해 매우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2005년도 33.7%에서 2008년도 45.3%로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수출은 국가 경제 성장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어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출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로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수출에 미치는 기여도나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장려 정책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경제에 있어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국민경제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비중의 변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통계상에 나타난 시사점 등을 정리하였다. 현행 통계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2.1 선행연구

이광훈과 김현(2010)은 IT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 1988년에서 2007년까지 20년간 IT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상위 22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IT산업에 대한 FDI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FDI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FDI의 시차변수를 이용한 도구변수 추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통신 및 방송서비스와 컴퓨터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IT 서비스업 분야의 FDI의 증가가 생산성 과급효과를 통해 IT 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유발 효과를 통해 수입 역시 뚜렷이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IT FDI와 수출 간의 보완적 관계는 G7국가에 비해 비G7국가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비G7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T제품의 수출입이 환율 변화와 구매력 변화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외구와 정남기(2011)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감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출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수출대체성과 수출보완성을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초기에는 한국으로부터 부품 및 원자재의 수출을 증대시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 보완적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현지시장의 보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 대체적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경우 현지시장의 저렴한 원자재와 중국정부의 원자재 현지조달 방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지의 높은 임금과 국내 부품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활발하지 못해 모회사의 부품수입을 유발하는 수출보완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가 직접수출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 투자업종 다양화, 투자지역 다변화, 정책적 지원과 배려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하였다.

Blomstorm과 Lipsey(1994)은 수출함수와 계량분석을 통해 미국과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와 직접수출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산업별 실증분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해외자회사의 생산을 대표하는 변수는 양(+)이 될 수도 음(-)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이 될 가능성은 첫째, 투자국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원료와 중간재 같은 것을 필요로 하면 해외자회사는 모회사의 의존도에 따라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둘째, 해외자회사의 활동이 투자국 산업 생산에 대한 피투자국의 시장 크기를 증가시킨다면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음이 될 가능성은 피투자국의 시장점유율이 고정되었다면 해외직접투자가 중간재를 모기업으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모기업의 최종재 수출이 해외자회사 생산활동에 의해 대체된다면 음이 될 수 있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다.

## 2.2 디지털 시대에 중소기업 수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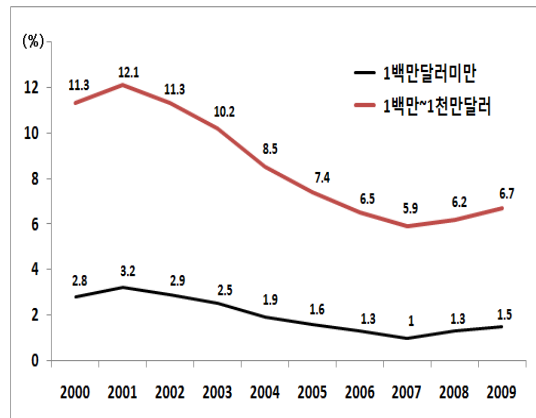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은 수출 주력의 역할을 맡아 국민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업은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도 40%대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 일반적이다.

한국 전체 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은 약 26% 수준으로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비중 하락원인으로는 대외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저가제품의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고급기술제품의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적으며 대기업형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 기준으로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비중도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하락은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를 넘어 시장 다변화에 노력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 반도체, 휴대폰 등에 대해 대기업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1]에서 연간 수출실적이 1백만~1천만 달러이면 중견규모업체로, 1백만 달러 미만이면 소규모업체로 인식한다.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 연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미만 업체의 수출비중 동향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알려져 있는 대만의 경우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반 경우 약 56%에서 최근에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OECD, 1997)(SME Administration of Taiwan, 2009). 인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약 3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Das et. al, 2008). 중국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이지만 90년대 초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40%~60%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출된 모든 상품의 30%가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기간 동안 미국 중소기업의 수출은 1,530억 달러에서 3,070억 달러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기간 동안 미국 수출 중소기업 수는 1997년 19만개에서 2007년 25만개로 약 30% 증가하였으며 개별 기업들의 수출액도 약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USITC, 2010).

〈표 1〉 대만의 기업 규모별 수출액과 비중  
(단위: 억 달러, %)

	총수출	대기업 수출	중소기업 수출
2001	62,967	49,963 (79.35)	13,004 (20.65)
2002	70,081	56,572 (80.72)	13,509 (19.28)
2003	73,327	60,049 (81.89)	13,278 (18.11)
2004	84,329	70,065 (83.09)	14,264 (16.91)
2005	86,309	71,121 (82.40)	15,188 (17.60)
2006	87,318	71,695 (82.11)	15,622 (17.89)
2007	96,083	79,694 (82.94)	16,389 (17.06)
2008	94,762	78,315 (82.64)	16,447 (17.36)
2009	78,019	64,855 (83.13)	13,164 (16.87)
2010	100,235	84,035 (83.84)	16,200 (16.16)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별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수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적절한 비중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는 국가별로 경제의 발전 정도나 산업 구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에 직접 기여하는 바는 작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직접수출을 함으로서 자국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완성품 수출에 소요되는 부품이나 소재 및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출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이 최종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 3. 수출 현황과 수출통계 현황

2010년도 우리나라 IT산업 수출 실적은 처음으로 1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하지만 많은 부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몫을 찾아보고자 이제부터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수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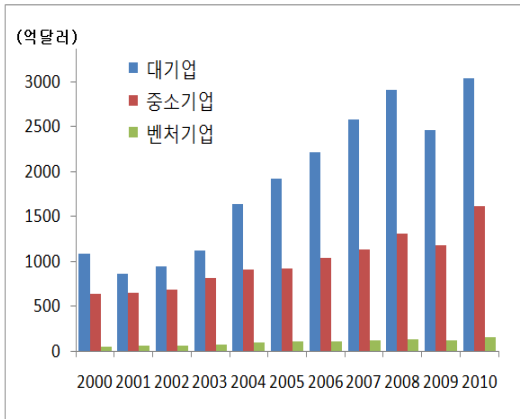
#### 3.1 기업규모별 수출 비교

##### 3.1.1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중소기업 수출은 1998년도부터 기록하고 있다. 기록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 드디어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042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0년도 635억 달러에서 2010년도 1,618억 달러로 250% 이상 성장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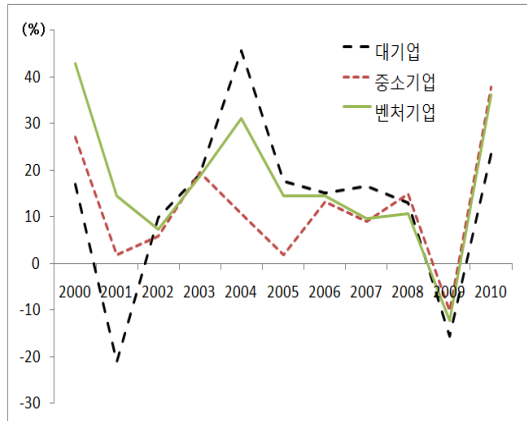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총수출 증가율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2002년 이후 총수출 증가율보다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2001년에 43.0%로 중소기업 수출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6.1% 상승한 수치이다.



자료 :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그림 2] 기업 규모별 수출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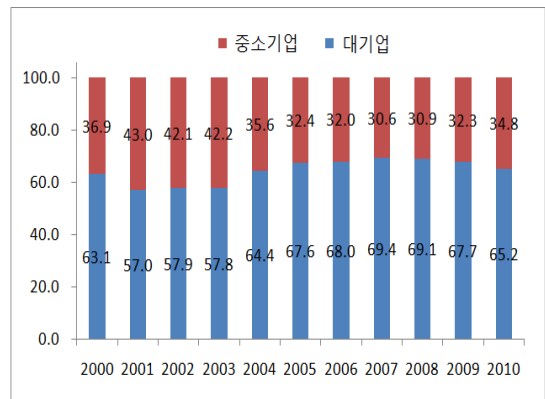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그림 3] 기업규모별 수출 증가율 추이

하지만 2004년도 이후 최근까지 30~35%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액의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성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수출 증가율이나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정체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1.2 업종별 수출 현황

중소기업의 업종별 수출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2009년에 67.7%를 차지하여 중소기업 총수출의 약 2/3을 상회하며 3대 수출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자료: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그림 4] 기업규모별 수출 비중 (단위: %)

<표 2> 중소기업의 업종별 수출액과 각 업종별 비중

(단위 : 억 달러, %)

	전체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
2001	646	20(3.1)	3(0.4)	53(8.2)	34(5.3)	132(20.4)	26(4.0)	34(5.2)	131(20.2)	201(31.2)	13(2.0)
2002	683	19(2.7)	4(0.5)	69(10.1)	30(4.5)	133(19.5)	24(3.5)	38(5.5)	105(15.4)	253(37.0)	8(1.2)
2003	817	20(2.5)	23(2.8)	95(11.6)	33(4.1)	129(15.8)	23(2.8)	70(8.6)	138(16.8)	272(33.4)	14(1.7)
2004	904	23(2.6)	36(4.0)	113(12.5)	36(4.0)	133(14.7)	25(2.8)	88(9.7)	143(15.8)	294(32.5)	13(1.4)
2005	921	26(2.8)	10(1.1)	120(13.0)	46(5.0)	126(13.7)	26(2.8)	84(9.1)	185(20.1)	287(31.2)	12(1.3)
2006	1,042	25(2.4)	15(1.4)	138(13.2)	47(4.5)	119(11.4)	25(2.4)	101(9.7)	201(19.3)	358(34.3)	13(1.2)
2007	1,135	28(2.0)	21(1.9)	163(14.4)	52(4.6)	120(10.6)	25(2.2)	126(11.1)	260(22.9)	333(29.3)	9(0.8)
2008	1,305	32(2.5)	39(3.0)	185(14.2)	58(4.4)	119(9.1)	24(1.9)	165(12.6)	330(25.2)	337(25.8)	17(1.3)
2009	1,173	34(2.9)	37(3.1)	165(14.0)	55(4.7)	105(9.0)	21(1.8)	113(9.6)	296(25.2)	335(28.5)	12(1.1)

자료: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전기전자업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계업종은 2002년에 전년대비 4.8%p 하락한 15.4%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2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업종은 2002년 이후 10~15% 사이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반면 섬유업종은 2001년 중소기업 총수출에서 20.4%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9.0%로 비중이 큰 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섬유업종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여전히 효자업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벤처기업의 업종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전체	자동차부품	기타개별 소자반도체	기타무선통 신기부품	반도체제 조용장비	기타플라 스틱제품	기타기계 류	동봉	기타계측 기	광학 렌즈	기타충전 기기부품
2011	177	8.5	6.6	6.3	5.6	5.3	4.1	3.5	3.4	3.0	2.6
2010	159	6.7	10	7.5	5.7	4.7	3.2	2.8	2.7	2.3	1.7

	전체	자동차부 품	기타개별 소자반도 체	기타무선통 신기부품	화물선	기타플라 스틱제품	기타기계 류	위성방송 수신기	프로세스 콘트롤러	광학 렌즈	기타컴퓨 터부품
2009	116	3.9	4.5	3.9	2.4	3.6	2.6	2.1	2.1	2.1	1.8
2008	133	2.8	2.1	6.3	3.5	3.1	2.9	3.0	2.8	2.9	1.7

	전체	자동차부 품	반도체제 조용장비	기타무선통 신기부품	화물선	기타플라 스틱제품	기타기계 류	위성방송 수신기	프로세스 콘트롤러	광학 렌즈	화학기계
2007	120	2.9	4.6	6.5	2.8	3.0	2.0	3.4	2.9	1.8	2.3
2006	110	3.2	2.7	6.5	1.8	3.4	1.9	2.1	0	1.0	1.0

	전체	자동차부 품	기타집적 회로반도 체	기타무선통 신기부품	휴대용 전화기	기타플라 스틱제품	기타기계 류	위성방송 수신기	기타잡제 품	음향기 기부품	TV카메 라
2005	103	2.6	2.3	6.0	2.1	2.3	1.6	5.1	2.0	2.0	1.4
2004	90	1.7	2.1	3.9	6.8	1.5	1.2	5.8	1.8	2.8	1.4

	전체	자동차부 품	기타집적 회로반도 체	기타무선통 신기부품	휴대용 전화기	기타플라 스틱제품	기타기계 류	위성방송 수신기	기타플라 스틱제품	음향기 기부품	데이터디 스플레이
2003	71	1.5	1.5	4.7	6.3	1.3	1.0	5.1	1.3	1.7	1.3
2002	60	1.5	0.6	2.9	2.5	1.1	0.7	5.2	1.1	1.6	1.1

	전체	자동차부 품	기타유 선전송 장치	기타무선통 신기부품	휴대 용전화 기	기타플라 스틱제품	기타컴퓨 터부품	위성방송 수신기	기타플라 스틱제품	다이아몬 드공구	데이터디 스플레이
2001	56	1.0	2.2	2.3	1.3	1.1	1.4	4.2	1.1	1.0	1.6
2000	49	0.8	0.4	1.4	0.4	1.2	0.8	2.0	1.2	0.6	1.0

자료: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표 4〉 중소기업의 품목별 수출액과 각 품목별 비중

(단위 : 억 달러, %)

	전체	자동차	편직물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2001	646	0.5(0.1)	22.8(3.5)	33.1(5.1)	16.1(2.5)	33.6(5.2)	59.4(9.2)
2002	683	1(0.1)	24.8(3.6)	57.3(8.4)	16.7(2.4)	9.8(1.4)	59.1(8.7)
2003	817	56(0.7)	25.2(3.1)	58.1(7.1)	27.3(3.3)	10.2(1.2)	67.5(8.3)
2004	904	7.6(0.8)	26.6(2.9)	86.7(9.6)	23.7(2.6)	11.9(1.3)	69.5(7.7)
2005	921	6.4(0.7)	26.4(2.9)	52.6(5.7)	35.6(3.9)	8.7(0.9)	86.4(9.4)
2006	1,042	9.0(0.9)	28.4(2.7)	50.3(4.8)	36.5(3.5)	14.3(1.4)	111.5(10.7)
2007	1,135	13.9(1.2)	31.0(2.7)	44.3(3.9)	43.0(3.8)	26.6(2.3)	119.9(10.6)
2008	1,305	27.7(2.1)	32.1(2.5)	44.3(3.4)	46.2(3.5)	53.0(4.1)	106.4(8.2)
2009	1,173	18.6(1.6)	31.3(2.7)	41.5(3.5)	43.4(3.7)	54.3(4.6)	106.1(9.0)

자료: 무역협회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2000년도 49억 달러에서 2011년도 1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1년 동안 무려 360%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의 업종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도에 기타개별소자 반도체와 기타무선통신부품, 자동차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업종에서 5억 달러가 넘는 높은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

### 3.1.3 품목별 수출 현황

중소기업의 품목별 수출액은 2009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품목별 수출액은 2009년도 기준으로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기구부품, 자동차, 컴퓨터의 순이다.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출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에서 반도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최근까지 8~10%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3%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며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의 호조는 세계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 3.1.4 국가별 수출 현황

중소기업의 수출을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도 중국 수출이 280억 달러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총수출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3년 47.9%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중국관련 교역구조가 가공무역에서 중국 내수시장 공략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에서 역할이 다소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총수출이나 중소기업 수출에서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며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일본 수출은 12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55.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수출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유일하게 50%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엔고현상으로 인해 일부 품목이 엔고효과를 누리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은 2009년도 112억 달러로 우리

나라 미국 총수출의 29.7%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EU 수출에서 97달러로 2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호조와 더불어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LCD 등 수출 주력 제품인 IT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나 LCD,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직접수출을 하기보다 주로 제조 대기업으로 납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하락하는 이유는 생산중심이 수출보다 내수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스스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주로 모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품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파악하려면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정확히 도출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국가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이후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독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수출액의 증가는 각 국가별로 2배에서 7배까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3.2 중소기업 수출 통계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무역통계는 관세청이 작성하는 1차 무역통계와 이를 기초로 한국은행과 무역협회 등에서 상품을 재분류하여 작성하는 2차 무역 통계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입 품목의 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HSK(Harmonized System Korea)를 사용하고 있으나 무역협회 등에서는 HSK 코드를 재분류한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코드를 무역동향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수출입 통계의 단위는 미 달러화로 표시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통계는 1963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자료를 근거로 중소기업 수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소기업 수출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초한 통관자료에 의해 사업자 단위로 구축된 통관 원시자료를 기업체 단위로 전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수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수출통계 원시자료 자체의 집적 방식에 있다. 수출업체를 대·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단위로 수출 정보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하는데 필요한 종업원수나 자본금 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표 5〉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액과 국가별 비중  
(단위: 억 달러, %)

	중국	ASEAN	미국	일본	EU	홍콩
1999	55 (40.2)	67 (38.2)	95 (32.4)	66 (41.8)	53 (26.2)	35 (38.7)
2001	87 (47.9)	79 (48.4)	116 (36.9)	75 (45.7)	79 (40.3)	45 (48.1)
2003	168 (45.8)	106 (52.6)	120 (33.9)	80 (44.7)	81 (32.6)	76 (49)
2004	189 (37.9)	115 (47.9)	129 (30.1)	96 (44.1)	91 (24)	87 (47.7)
2005	203 (32)	127 (46.3)	139 (33.6)	11 (46.1)	83 (19.1)	56 (36)
2006	229 (32.9)	151 (47.1)	134 (31)	129 (48.5)	99 (20.5)	61 (32.1)
2007	250 (30.4)	179 (46.2)	134 (29.2)	126 (47.7)	109 (19.5)	57 (30.5)
2008	278 (30.4)	208 (42.2)	145 (31.2)	144 (50.9)	121 (20.7)	61 (30.8)
2009	280 (32.2)	201 (49)	112 (29.7)	121 (55.5)	97 (20.9)	68 (34.5)

자료: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표 6〉 벤처기업의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독일
2011	51.6	23.0	15.4	10.3	7.6	4.7
2010	45.3	19.6	12.6	10.3	7.8	6.9
2009	29.5	13.3	10.3	9.6	4.5	5.3
2008	30.9	16.5	12.5	8.7	6.3	3.9
2007	25.3	16.3	11.0	8.8	7.0	3.9
2006	24.5	15.3	10.9	9.4	6.0	3.8
2005	24.1	14.7	10.4	11.0	7.4	2.8
2004	16.8	14.2	9.2	12.3	8.0	2.9
2003	15.8	11.1	6.3	9.1	4.0	2.3
2002	10.5	10.8	6.4	5.5	2.3	2.3
2001	7.2	10.4	7.5	4.3	2.0	2.3
2000	4.0	10.5	5.5	3.8	2.4	1.9

자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하는데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각종 통계 분류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 관세청 수출자료가 제조자 기준이 아닌 수출/위탁자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집계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직접 수출하는 경로와 여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통해 수출하거나 여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최종수출품에 부품,

소재나 원자재를 납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직간접수출 경로 및 수출에 기여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수출통계 작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정도도 명확하게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구나 간접수출의 정도를 추정해 내는 것은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라 판단된다.

## 4.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과제

### 4.1 수출 활성화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은 고용 창출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 외에도 생산성 향상, 혁신 제고 등과 같은 기업차원의 기여와 유연하고 탄력적인 산업구조의 형성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유치나 경제 활동성을 제공하는 등 국가발전에 구조적으로 기여하고 소득 분배나 지역 불균형 같은 사회 관습적인 분야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근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나 기술집약적인 상품의 개발, 틈새시장의 발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활용, 국제합병이나 합작회사의 설립 등과 같은 새로운 국제적인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방경제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수입규제가 암묵적으로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대량수출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이 수입과 관련된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대기업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특유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중소기업의 의미는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에 달하고 있으나 생산이나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약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미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국제화의 촉진을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적인 효과는 대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며 기대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막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제도

분 야	시행기관	세부 지원 사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 선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보육사업,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출유망 중소기업 발굴 선정지원, 수출창업기업지원
	KOTRA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청	수출촉진지원센터 운영, 무역투자 촉진단 파견,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퇴직수출유망기업자 활용 중소기업 현장지원, 중소기업과 무역상사간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종합상사 연계지원, 수출촉진단 파견, 부품수출구매상담회, 인터넷 쇼핑몰 지원, 현지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시장개척지원(Best of Korea)
	KOTRA	수출확대 증진품목 성약지원, 수출 촉진단 파견, 수출거래알선, 해외박람회 참가, 한국상품 구매상담회 개최, OEM부품 수출 상담회, 해외 한국상품 상설 전시관매장 운영
	무역협회	세계유명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알선, 수출신고대행 해외바이어 초청 구매상담, 중소기업주물류지원센터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KTnet	무역거래알선서비스, 무역자동화서비스
자금지원	중소기업청	수출창업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출자금 지원
	KOTRA	해외시장 개척기금 용자 추천
	무역협회	해외시장 개척기금 용자 추천
	수출입은행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정보제공	중소기업청	인터넷 외환정보 및 국내외 조달정보 제공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
	KOTRA	해외수입상, 지역 및 상품시장 정보, 해외시장 조사대행, 골드키 서비스
	무역협회	국별 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KTnet	수출입통관 정보서비스
홍 보	중소기업청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활용한 제품홍보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 구축 Korea Buyer's Guide 게재 지원
	KOTRA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Korea Trade) 제작 배포
	무역협회	중소수출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중소기업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교 육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 순회 실무교육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출자문단 수출실무 컨설팅, 수출실무 세미나
	KOTRA	중소기업 수출자문단 운영
	무역협회	무역실무교육, ECRC 교육 서비스

자료 : 홍유수·반유미(2006), 오동윤(2007)

## 4.2 디지털 시대에 수출 지원정책의 평가

### 4.2.1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 선정에서부터 해외시장 개척, 자금 지원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유수(2006)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관련된 지원기관의 수는 11개이며 총 프로그램 수는 170개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지원기관의 수와 각 지원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를 외국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파악된 국별 총 기관수는 대개 5~8개이며 평균 사업수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5~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의 비교는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 지원정책의 유형은 정보화지원, 조세감면, 기술지원, 정책개선 등의 유형에 대한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 있다. 일본은 보증, 인력, 자문의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자금 지원에 21.9%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정보제공에 20.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마케팅 분야의 비중이 28.6%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는 정보제공분야가 33.3%로 가장 높다.

미국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시장접근을 위한 정보제공 분야와 경제/법률 자문과 같은 컨설팅에 지원의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자금 지원을 가장 우선시하고 다음으로 정보제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어느 나라의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및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가 서구 선진국이나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 4.2.2 우리나라 수출 지원 정책의 효과

2006년도에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 또는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해 약 67%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준호, 2006). 또한 설문

에 응답한 현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 국제화 관련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불과 18% 정도에 불과하였다.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이준호(2006)의 경우, 정부 지원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약 1/3만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4 정도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세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및 APEC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수출 지원 등과 같은 국제화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49.0%로 우리나라 3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원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 지원 사업의 홍보 및 효율성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지원과 같은 국제화 지원 사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집행 과정 및 방식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업 공급자로서의 정부와 수요자로서의 중소기업간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3 디지털 산업에서 수출 활성화 과제

중소기업은 수출이나 해외진출 등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기업과 달리 근본적으로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과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수출이나 해외진출 등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직면하게 되는 장벽은 크게 내부적 장애와 외부적 장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부적인 장벽은 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조직의 자원과 능력 등과 관련된 장애로서 정보·생산·가격을 통칭하는 정보 장벽, 기능적 장벽, 유통·물류·프로모션 장벽 등을 의미하는 마케팅 장벽이 있다. 외부적 장애는 사회 환경 등을 의미하는데 OECD & APEC(2006)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표 10> 참조).

〈표 8〉 주요 국가들의 수출 지원 정책 유형 비교

(단위 : %)

	시장접근			금융자원			역량제고				경영환경		합계
	마케팅	정보 제공	정보화 및 e-biz 지원	조세 감면	금융/자금 지원	보증	인력교육훈련 지원	기술지원	자문경영/법률	사무행정	정책/법/제도 개선	양다자간 협력	
한국	12.9	14.1	2.4	-	12.4	8.8	4.1	1.8	15.9	11.2	1.8	14.7	100.0(170)
일본	9.3	25.6	-	-	11.6	9.3	39.5	-	-	4.7	-	-	100.0(43)
중국	4.9	14.6	-	-	14.6	2.4	12.2	-	4.9	14.6	24.4	7.3	100.0(41)
대만	11.1	11.1	6.3	-	15.9	20.6	4.8	-	6.3	3.2	3.2	17.5	100.0(63)
말레이시아	10.0	20.0	-	2.0	38.0	12.0	4.0	4.0	4.0	2.0	2.0	2.0	100.0(50)
태국	10.0	15.0	-	-	30.0	2.5	10.0	5.0	20.0	7.5	-	-	100.0(40)
미국	6.8	20.5	8.2	5.5	21.9	5.5	1.4	5.5	17.8	1.4	2.7	2.7	100.0(73)
캐나다	-	26.5	5.9	-	8.8	29.4	2.9	2.9	17.6	2.9	2.9	-	100.0(34)
영국	15.4	17.9	-	-	5.1	5.1	15.4	-	33.3	7.7	-	-	100.0(39)
독일	31.0	20.7	-	3.4	10.3	6.9	6.9	-	6.9	3.4	3.4	6.9	100.0(29)
네덜란드	19.0	33.3	14.3	-	4.8	-	-	4.8	9.5	14.3	-	-	100.0(21)
덴마크	28.6	10.7	3.6	-	7.1	21.4	3.6	0.0	7.1	0.0	0.0	17.9	100.0(28)
전체	11.9	17.6	3.1	1.1	16.4	10.4	7.5	2.0	12.7	6.3	3.1	7.7	100.0(636)

자료 : 홍유수·반유미(2006)

주 : ( )는 국제화 지원서비스 사업의 총수

OECD(2006)가 지적한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국제적인 사업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의 획득이 어렵다. 중소기업은 시간과 역량, 금융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서의 진출 기회를 확인하고 그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과 위험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해외의 잠재고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잠재 고객을 확인하는 능력이 부족해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실패하게 될 시장에 접근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

〈표 9〉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사업의 효과

(단위 : %)

	OECD-APEC 회원국 중소기업	한국 중소기업
매우 크다	27	9.1
크다	22	23.2
보통	25	41.7
작다	18	11.8
거의 없다	8	14.4

주 : APEC(2006), 이준호(2006)

셋째, 해외에서 신뢰할 만한 대행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기업은 자사내의 국제 업무조직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넷째, 수출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제금융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다.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국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할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대기업만 이용이 가능하다.

여섯째, 시장접근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도 애로사항이다. 중소기업은 시장 내에서 수송과 유통 비용과 같은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일곱째, 정부의 지원을 파악하거나 접근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정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성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

운 사업을 시도하기 보다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현행 사업들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 요구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운영 중이거나 새로 실시하려는 지원 수단을 공급

자와 수요자의 공통된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그룹별로 세분화하고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인식 차를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수출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0〉 국제화의 장애 요인

클러스터	OECD-APEC (2006)	세부 내용	OECD (1997)
1	자금 및 대금회수	수출금융에 필요한 운전자본 부족 외국인 고객에 대한 신용인증 보장 해외로부터의 자금 회수 부족, 계약이행 및 분쟁 해결	금융
2	관세 및 규정	비우호적인 외국인 법률 및 규정, 고관세 장벽 엄격한 외국인 법률 및 규정, 높은 통관 비용 부적절한 재산권 보호(예: 지적재산권) 제한적인 건강, 안전, 기술표준(예: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 독단적인 관세 분류 및 재분류 조정 비우호적인 할당량 및 통상금지 조치	사업 환경
3	위험 및 인프라	해외로부터 악화된 경제 환경, 외국인 위험 전자 상거래를 위한 불안정한 인프라스트럭처 외국인시장에서의 정치적 불안정	사업 환경
4	본국 정부의 지원 및 본국 환경	본국 정부의 보호 및 인센티브 부족 비우호적인 본국 법률 및 규정	사업 환경
5	자원	국제화를 취급하기 위한 관리시간 부족 국제화를 위한 불충분한 규모 및 미숙련 인력	역량
6	제품 개발 및 지원	외국인 시장을 위한 신상품 개발 수출 제품의 디자인 및 유형 채택 수출 제품의 질, 표준, 특성사항 충족 수출 포장 및 라벨링 요구사항 충족 기술 및 사후 관리의 제공	역량
7	생산 및 물류 부문 역량	수출을 위한 여분의 생산품 부족 해외 공급을 위한 재고품 부족 해외 창고설비의 이용 불가, 운송 및 보험 비용 초과	역량
8	목표시장에서의 경쟁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가격 제공, 경쟁자 가격에 대응하기 곤란, 해외시장에서의 철 예한 경쟁	역량
9	의사소통	해외고객과의 의사소통 곤란 외국인 고객의 관습 및 태도에 대한 이해 곤란 외국인 사업 관행의 미숙, 언어/비언어적인 어려움 사회/문화적 특색에 대한 이해 곤란	역량
10	정보	시장 정착 및 분석을 위한 제한된 정보 국제시장에 대한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 외국인 사업 기회에 대한 확인 잠재적인 해외 고객과의 접촉 불가능	접 근 성
11	목표시장에서의 제품 유통	외국인 배급/유통망의 복잡성, 수출 배급/유통망 접근 신뢰할만한 외국인 대표자 확보, 외국인 중개인에 대한 통제의 지속 목표시장에 대한 수출촉진 활동 조정 수출절차 및 서류작업 미숙	접 근 성

자료: OECD and APEC(2006).

## 5. 결론

국내 중소기업이 총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모두 고려해 보면 총수출의 약 40%에서 50% 정도는 중소기업이 차지한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명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수출기여도를 실증적으로 추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근사치에 가깝게 추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시통계의 집적 방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제조자 기준의 수출통계 집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 수출신고서상에 최종 수출을 한 제조업체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대기업의 자회사인지 혹은 단독사업체 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생산과정을 통해 수출하는 정도를 추산할 수 있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가치사슬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 및 생산 경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체의 비협조적인 반응과 납품 중소기업의 영세성 등에 기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수출되는 완성품 제조에 투입된 중소기업의 기여 정도를 공개한다는 것은 제품 제조원가의 공개이며 이는 기업의 기밀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기청이나 통계청 등에서 산업별로 적정한 규모의 모집단을 선정하고 적절한 표본설계 및 추출을 통해 수출 대기업 및 납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과 관련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지원을 꾸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해 이해와 산업별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들을 국내외의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내 시장에서조차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마케팅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화의 추세가 심화되면 될수록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차지

하는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적·물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현지화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가장 싼값에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최종 상품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에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한 추세에 동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활동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총수출에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여도를 전체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희철(1995), "한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종합상사와의 기능보완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11(1).
- [2] 양은영(2010), 「최근 엔고현상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시장동향」, Executive Brief, KOTRA, 10(24), p16.
- [3] 오동윤(2007),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연구", 기본연구, 중소기업연구원, 7(19).
- [4] 이광훈·김현(2010), "IT산업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 분석", 경제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8(1), pp47-68.
- [5] 이준호(2007), 「글로벌 경쟁시대의 중소기업 국제화」, 기본연구, 중소기업연구원, 7(11).
- [6] \_\_\_\_\_(2006),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뉴브리지, 중소기업연구원, 6(3).
- [7] \_\_\_\_\_(2010),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 실증분석」, 기본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0(19).
- [8] 이준호·김종일(2007),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뉴브리지, 중소기업연구원, 7(1).
- [9] 신상철(2006), 「중소기업 수출통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 p87.
- [10] 중소기업청(2012), 「중소기업관련통계」.
- [11] 한국은행(2012), 「기업경영분석」.
- [12] 홍유수·반유미(2006), 「주요국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뉴브리지, 중소기업연구원, 6(7).

- [13] Blomstorm, M., R. Lipsey and M. Zegan.(1994), "What explain developing country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4132, National Bureau for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achusetts.
- [14] OECD(1997), "Globalisation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ol 1: Synthesis Report, Paris: OECD.
- [15] OECD and APEC(2006), "Removing Barriers to SME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OECD-APEC Global Conference.
- [16] USITC(201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Overview of Participation in Exports", Investigation No. 332-508, USITC Publication 4125, Washington, DC.
-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http://www.kiep.go.kr)
- [18]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http://www.kita.net)
- [19] 한국수출입 : [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 [20] 중소기업연구원 : [www.kosbi.re.kr](http://www.kosbi.re.kr)

## 이 옥 동



- 1981년 2월 : 동국대학교 부동산과 (경영학사)
- 1994년 2월 : 동국대학교 부동산과 (경영학석사)
- 2000년 2월 : 라살 아르네타대학교 부동산학과(경영학박사)
- 2006년 3월~현재 : 성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디지털경영
- E-mail : [lod57@hanmail.net](mailto:lod57@hanmail.net)